

아시아권 화자들이 발화한 담화표지어의 억양패턴 연구: 위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윤성숙 · 정현성**
한국교원대학교

A Study on the Intonation Patterns of Discourse Markers by Asian Speakers of English: Focusing on the Location and Function

Yun, Seongsuk · Chung, Hyuns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age and intonation patterns of three discourse markers, *well*, *you know*, and *I mean*, by three groups of Asian speakers of English, Cantonese, Mandarin, and Korean. First, the types of intonation patterns of the three discourse markers used in all positions were not as diverse as those of native speakers. In particular, Korean speakers used even fewer intonation patterns than Cantonese and Mandarin speakers. Second, the preferred intonation patterns in different functions by the three groups were not clear. The three groups preferred more than two intonation patterns in each function,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native speakers in that they preferred a single intonation pattern for a specific fun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ontinuous and systematic intonation education is needed in English curriculum to help learners use appropriate intonation patterns and explicit instruction is needed to help learners use various discourse markers function effectively.

Key words: discourse marker, intonation pattern, position, function, Asian speakers, instruction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997년에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나서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업시수 확대, 성취 기준 및 학습량 변화, 학년군제 도입, 핵심역량 개념 도입 등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이재근, 정은숙, 2015). 이처럼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습자

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다. 의사소통능력 향상은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학습자들이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거나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하며, 여기에는 영어 이해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의 국제적 위상과 중요성에 대하여 기술하며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영어는 이제 세계인과의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

* 이 논문은 아시아권 화자들이 발화한 담화표지어의 억양 연구(윤성숙, 2018)의 위치와 기능 영역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함.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영어교육과 정현성 교수 (Email: hchung@knue.ac.kr)

이므로 학교에서도 영어를 국제어로서 인식하고 배워갈 수 있게 해야 한다(송경숙, 2011). 국제화의 가속화로 ELF(English as a Lingua Franca) 연구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ELF 연구가 유럽의 비원어민 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혜지(2017)에 따르면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의 ELF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ELF의 음성학적 측면 연구(Jenkins, 2002; Walker, 2010), 화용론적 측면 연구(House, 2009), 어휘·문법적 측면 연구(Breiteneder, 2005) 등이 모두 유럽 비원어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아시아 화자들의 대화코퍼스 구축을 통한 ELF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권의 화자들의 분절음 연구(정현성, 김윤규, 이상기, 2016), 아시아권 화자들의 발화에서 나타난 리듬의 특성에 대한 연구(정현성, 이상기, 김윤규, 2016), 아시아권 화자들의 대화문 분석을 통한 어휘 및 문법 연구(이상기, 정현성, 김윤규, 2016) 등은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사적 편향을 극복하고 연구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상황의 ELF 연구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 유럽 비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에 남주연(2015)의 담화표지어 억양연구가 있었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Romero-Trillo(2015)의 담화표지어 억양 연구도 영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연구 대상과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

담화표지어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억양과 관련지어 해석하거나 억양을 바탕으로 한 음성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윤성숙, 김정렬, 2018). 억양은 영어 화자와 유사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고자 할 때 가장 학습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억양이 잘못되면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문법적, 화용적 의미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음 오류가 나타나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기기도 하며, 어색하거나 외국어 같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유창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억양교육이 필요하다. 더욱이 의사소통 상황

에서 이해와 전달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음성언어인데, 음성언어의 정확한 이해와 전달에는 발음, 억양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오류 유형이 비슷하므로 한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권 화자의 대화맥락에서 나타나는 주요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위치와 기능에 따른 억양을 연구하여 언어별로 학습자에게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둥어(Cantonese), 만다린(Mandarin), 한국어(Korean) 모국어 집단 간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위치에 따른 억양패턴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기능에 따른 억양패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관찰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억양의 중요성

영어 발음의 5대 요소에 해당되는 자음(consonant)과 모음(vowel), 강세(stress), 리듬(rhythm), 억양(intonation)은 영어 발음 교육에서 골고루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3-4학년군의 성취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표 1>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으로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고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제시되었지만 교사가 사용하는 지도서와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억양은 의사소통의 이해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교수 학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Dalton & Seidlhofer, 1994; Jenkins, 2000; 정현성 2012).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표 2>를 보겠다.

아래의 <표 2>를 통해 발음 5요소에 대한 ‘교수의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3-4학년 듣기 성취기준

| 내용 | 3-4학년 듣기 |
|------|---|
| 성취기준 | 낱말, 어구, 문장을 듣고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할 수 있다. |
| 학습요소 | 알파벳, 낱말의 소리, 강세, 리듬, 억양 성취기준해설: 낱말, 어구, 문장을 듣고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할 수 있다.’는 강세 박자 리듬 언어인 영어의 분절 음소와 강세, 리듬, 억양 등의 초분절 음소를 익히게 하려는 데 초점이 있다. |

<표 2> 발음 요소와 의사소통의 이해가능성

| | | | | | |
|---------------------------|----|----------|-------------|----|----|
| Jenkins(2000) | ← | 지도의 수월성 | 의사소통의 이해가능성 | → | |
| 발음 5요소 | 자음 | 모음 | 강세 | 리듬 | 억양 |
| Dalton & Seidlhofer(1994) | ← | 교수·학습가능성 | 의사소통상의 중요성 | → | |

수월성과 의사소통의 이해가능성' 그리고 '교수·학습 가능성'과 '의사소통상의 중요성'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교수의 수월성과 교수·학습가능성을 보면, 자음>모음>강세>리듬>억양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이해가능성, 의사소통상의 중요성 측면을 보면, 자음<모음<강세<리듬<억양 순으로 나타난다. 즉, 자음이 나 모음은 의사소통의 이해가능성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주고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억양은 의사소통의 이해가능성과 의사소통상의 중요성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수의 수월성 측면과 교수·학습가능성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요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자음, 모음, 강세, 리듬에 비해 명시적으로 설명하거나 지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절한 교육적 처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 영어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의사소통능력 함양의 교육과정 목표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억양에 관한 연구와 지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담화표지어의 종류와 기능

Schiffrin(1987)은 담화 수준의 발화를 연속적으로 엮

어주는(sequentially dependent) 언어적 요소가 담화표지어라고 정의하였다.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한 Parrot (2002)는 <<영어교사를 위한 문법>>을 통해 담화표지어가 교실에서 지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교사와 학생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려하여 기능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담화표지어를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논리 관계를 나타내는 '텍스트적 담화표지어(textual DM)', 둘째, 대화의 주도를 결정하는 '대화 관리 담화표지어(conversational management DM)', 셋째, 청자에 영향을 끼치는 '예비적 담화표지어(preparatory DM)', 넷째, 화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태도 표지어(Attitude maker)'이다. Brinton(1996)은 담화표지어가 문법적으로는 선택적(optional)이고 통사적으로는 내용어와는 달리 의미가 비어(empty) 있지만 화용적으로는 문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담화표지어를 텍스트적 기능과 대인 관계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그 하위에 총 10개의 기능을 설정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아래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째,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은 화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구조화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대화맥락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담화를 연관성 있고 응집

<표 3> Brinton(1996)의 담화표지어 분류 (pp. 35-40)

| 분류 | 기능 | 내용 |
|-----------|----------------------|--|
| 텍스트적 기능 | 도입기능 |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오며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 |
| | 종결기능 | 대화를 끝내기 위해 사용. |
| | 발화차례 바꾸기 | 대화 차례를 가져오거나 상대에게 넘겨줄 때 사용. |
| | 망설임/차례 유지기능 | 공백을 채우거나 자신의 발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
| | 화제 전환기능 | 새로운 화제를 시작할 때 사용. |
| | 새/구정보 지칭 기능 | 구정보나 새로운 정보를 지칭할 때 사용. |
| | 순서/관련성 표지 기능 | 연속적인 상호 의존성, 관련성을 나타낼 때 사용. |
| 대인 관계적 기능 | 수정 표지 기능 | 잘못된 발화를 고치려고 할 때 사용. |
| | 반응 표지 기능 | 이전 발화에 대해 자신의 응답, 반응을 표현할 때 사용. |
| | 맞장구(back channel) 기능 | 맞장구와 같이 화자에게 잘 듣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 |
| | 동의 구하기 체면 완화기능 |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기능. 상대가 말한 것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이 포함. 체면을 완화하기 위해 반대되는 의견을 내거나 거절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 |

성 있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짜짜인 완결된 구조로 조직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즉, 대화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로 담화표지를 사용하면서 대화가 문맥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말 차례 순서가 오갈 수 있도록 기능한다. 둘째, 대인 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s*)은 대화자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대화는 반드시 둘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한데,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본인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단서를 지속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대화 구조에서도 상대방의 담화표지는 상호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화 참여자가 서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이는 대화를 유지하는 기능이며, 나아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 즉 대화 참여자들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다. 이처럼 <표 3>은 담화표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대화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

담화표지어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담화표지어의 범위와 종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담화표지어의 분류에서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그중 *well, like, you know, oh, now, but, and, uh, I mean* 등과 같은 담화표지어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주요 담화표지어로 분류되는 어휘이다. 주미경(1999), 신명희(2006), 최재환(2008) 등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한 *well, you know, I mean*의 대표적 기능을 아래의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어의 주요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분류 되는 주요 담화표지어 이면서도 공명도가 높아 음성학적으로 관찰이 용이한 어휘인 *well, you know, I mean*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특히, 연구 담화표지어의 주요 기능이 아시아권 화자의 대화에서 출현하는지 그리고 나타나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 억양패턴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표 4> *well, you know, I mean* 기능

| 담화표지어 | 기능 | 내용 |
|-----------------|-----------------------|---|
| <i>well</i> | ① 수정기능 | 화자는 말을 하는 도중에 오류를 범하고 이를 수정할 때 사용. |
| | ② 화제 전환기능 |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관심을 끌며 도입하고자 사용. |
| | ③ 틀(<i>frame</i>)기능 | 선행 발화와 후행에 오는 직접화법을 구분하는 틀(<i>frame</i>)기능을 함. |
| | ④ 체면 위협 완화 |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청자의 체면을 손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 |
| | ⑤ 망설임 | 자신의 말을 스스로 모니터하고 계획할 때, 말의 공백을 채울 때 사용. |
| | ⑥ 불충분함 |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거나 대답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 사용. |
| <i>you know</i> | ① 수정기능 | 화자는 말을 하는 도중에 오류를 범하고 이를 수정. |
| | ② 망설임 | 잠시 생각할 여유가 필요할 때 또는 <i>verbal filler</i> 로 공백을 채울 때 사용. |
| | ③ 연결 |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i>you know</i> 사용. |
| | ④ 완화 | 충고나 지시를 할 때 공격성을 완화하는 기능. |
| | ⑤ 공유지식 | 발화할 내용이 서로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공유된 지식임을 확인. |
| | ⑥ 경계 | 화자는 문장의 주제와 논평을 구별. |
| | ⑦ 관심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 |
| | ⑧ 종결 | 발화를 끝맺을 때 사용하는 기능. |
| | ⑨ 확신 탐색 | 부가의무문의 동의 요청 기능처럼, 동의를 요구할 때 사용. |
| <i>I mean</i> | ① 도입 | 화자는 발화 도중 새로운 화제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
| | ② 수정 | 화자는 말을 하는 도중에 오류를 범하고 이를 스스로 수정할 때 사용. |
| | ③ 부연설명 | 진술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나 이미 제시된 주장에 대해 설명. |
| | ④ 주장제시 | 진행되고 있던 화제를 보류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때 사용. |
| | ⑤ 재조직 | 담화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여 발화하고자 할 때 사용. |
| | ⑥ 논평 | 화자는 선행 발화의 내용에 대해 논의, 논평할 때 사용. |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EFL 화자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어의 억양 분석을 위하여 정현성, 김윤규, 이상기(2016)에 의해 구축된 아시아 영어 비원어민 의사소통 상황을 녹음한 음성 대화 코퍼스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아시아권 화자 집단에서도 참가자가 각각 20명을 충족하고 담화표지어가 충분히 관찰되어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광둥어 화자(Cantonese), 만다린 화자(Mandarin), 한국어 화자(Korean)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데이터는 홍콩중문대학교(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녹음되었고 자연스러운 대화맥락에서 자유주제를 토대로 약 5분씩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코퍼스 자료로 총 16시간에 이르며 파일 수는 총 150개에 이르는 자료이다.

2. 연구 도구

가. Praat

Praat은 다양한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메뉴 조절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음성파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억양 분석을 위해 피치 분석을 산출하여 피치 곡선 변화를 분석하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최성심, 2003). 대용량 파일을 수작업으로 처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대용량 파일의 음성 분석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Praat으로 음성파일을 열고,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을 일일이 들어 담화표지어가 사용된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담화표지어 구간(interval)을 표시하기 위하여 Textgrid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Textgrid에 해당 담화표지어의 종류와 위치를 기록한다. 이를 ProsodyPro(Xu, 2013)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정규화된 F0(normtime), 피치 평균(mean F0), 피치범위(pitch range), 화자의 모국어(L1), 담화표지어 길이(duration) 값을 추출하였다.

나. Antconc

‘AntConc’는 무료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으로 단어의 빈도(frequency), 범위(range), 비율(coverage), 키워드(keyword)를 빠르게 계산하여 보여주며, 콘코던스

(concordance)를 통해서 개별 낱말이 다른 낱말과 함께 사용되는 낱말 군, 언어, 패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tconc의 워드리스트(word list)기능을 활용하여 *well, you know, I mean*의 출현 빈도를 확인하였고, 콘코던스(concordance) 기능을 활용하여 담화표지어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자료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처리 방법

가. 담화표지어 분류 방법

Antconc로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을 찾은 뒤 저자가 1차 분석하고 영어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인 1명과 영어 원어민 1명이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담화표지어를 분류한다. 코퍼스 도구인 Antconc와 전자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Antconc의 위치를 보아가며 출력한 전자자료에서 담화표지어를 포함한 문장을 찾은 후, 그 문장 안에서 담화표지어가 앞에 있으면 ‘앞’, 중간에 있으면 ‘중간’, 끝에 있으면 ‘끝’으로 표기하고 맥락 안에서 기능을 찾아 분류하였다.

(예시1) G03AC5A (00:00-0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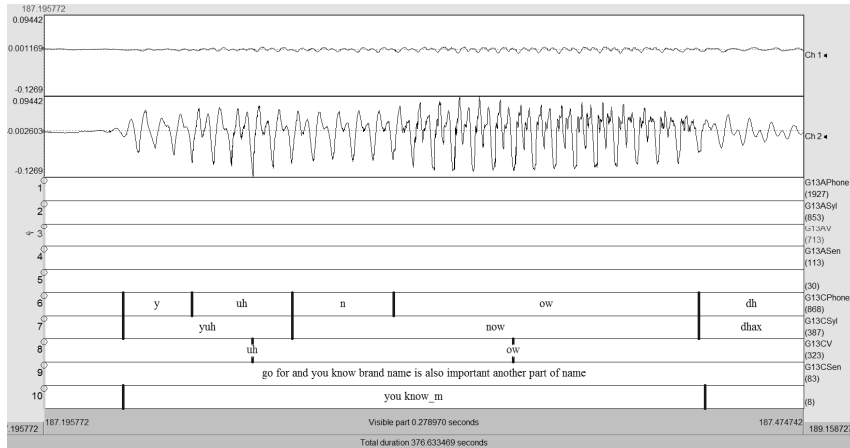
A: My name is Chan, Shing Chi.

C: My name is Safec Mohamed.

(중략)

A: I mean(앞) those, those black face teachers, uhh, we may not, we may not want to face them or ask them questions

위치 분류가 끝나면 각 담화표지어의 출현 빈도를 Antconc의 콘코던스로 파악한 후 출력한 전자자료를 보며 담화표지어의 위치와 기능을 표기한다. 특히, 위치를 찾고 기능을 파악할 때는 Praat을 통해 음성파일을 들으며 작업을 진행하고, 담화표지어가 나타나는 위치가 텍스트 그리드에 잘 표기가 되었는지, 대화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억양인지를 듣고 확인하여 기능을 파악한다. 본 연구자와 원어민 박사가 각각 분류하여 1차 대조에서 총 242개의 담화표지어 중 215개(88.84%)가 일치하였고, 표기가 달랐던 27개의 기능은 재차 음성 파일과 전자 자료를 재검토하였다. 27개의 경우 대부분 한가지로 정확히 분류 되기 보다 두가지 기능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였고 그러한 경우 논의를 통해 두 개 중 더 비중이 큰 기능(major function)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기능을 확정하였다.



[그림 1] G13AC2A 텍스트 그리드 담화표지어 *you know_m*

나. 음향적 자료 분석 방법

담화표지어의 음향적 자질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타깃 담화표지어를 일일이 들으면서 해당 담화표지어 구간(interval)을 표시하기 위하여 Textgrid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Textgrid에 해당 담화표지어의 종류와 위치를 모두 기록하였다.

이 작업을 진행한 다음, ProsodyPro(Xu, 2013) script를 활용한다. Prosody Pro는 공개된 스크립트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담화표지어 억양 분석에 필요한 tier number 정보, 남녀 성별의 차이에 따른 기본주파수 범위 조정 등 연구에 맞게 스크립트를 수정하여 시간 정규화 값을 구하였고 그 값을 통해 여러 화자 간 비교가 가능하며 담화표지어 억양곡선을 그릴 수 있어서 전반적 패턴 분석이 가능하였다.

다. 담화표지어 음향 자질 추출 및 변인 목록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담화표지어 사용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권 주

요 참여 모국어 집단인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가 발화한 담화표지어의 출현 위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억양패턴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구할 변인에는 담화표지어의 위치(rowlabel), 담화표지어의 기능(function), 담화표지어의 억양패턴(pitch contour), 시간적으로 정규화된 F0(normtime) 값을 구하여 억양 곡선을 그린 다음, 일정한 억양패턴 분류 방법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라. 억양패턴 분류 방법

Romero-Trillo(2015)의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억양패턴 분류 기준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Romero-Trillo(2015)에서는 총 7개로 억양패턴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5>의 담화표지어 억양패턴 분류 기준과 같다.

아래의 <표 5>를 기준으로 하여 z-score로 10개를 정규화하여 그린 억양 곡선의 패턴을 본 연구자가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1차 분류하였고 음성학 박사 학위 소

<표 5> 담화표지어 억양패턴 분류 기준(Romero-Trillo, 2015, p. 6)

| 항목 | 세부 항목 | 설명 |
|-------|-------------|-----------------------------------|
| 억양 패턴 | pattern 1 | falling : 하강 억양패턴 |
| | pattern 2 | rising : 상승 억양패턴 |
| | pattern 3 | level : 평판 억양패턴 |
| | pattern 4 | fall-rise: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패턴 |
| | pattern 5 | rise-fall: 상승에 이은 하강 억양패턴 |
| | pattern 1+3 | 위의 pattern 1과 pattern 3이 혼합된 억양패턴 |
| | pattern 5+3 | 위의 pattern 5와 pattern 3이 혼합된 억양패턴 |

<표 6> 모국어에 따른 담화표지어 *well* 위치별 억양패턴 분포

| 변수 | 광둥어 화자 | | 만다린 화자 | | 한국어 화자 | | |
|----------------|--------|----|--------|----|--------|---|------|
| | N | % | N | % | N | % | |
| 처음 | 패턴1 | 3 | 16.7 | 3 | 12.5 | 4 | 50.0 |
| | 패턴2 | 3 | 16.7 | 2 | 8.3 | 0 | 0 |
| | 패턴3 | 6 | 33.3 | 4 | 16.7 | 0 | 0 |
| | 패턴4 | 1 | 5.6 | 7 | 29.2 | 3 | 37.5 |
| | 패턴5 | 4 | 22.2 | 3 | 12.5 | 1 | 12.5 |
| | 패턴1+3 | 1 | 5.6 | 5 | 20.8 | 0 | 0 |
| | 합계 | 18 | 100 | 24 | 100 | 8 | 100 |
| <i>well</i> 위치 | 패턴1 | 5 | 41.7 | 2 | 18.2 | 0 | 0 |
| | 패턴2 | 3 | 25.0 | 0 | 0 | 1 | 50.0 |
| | 패턴3 | 1 | 8.3 | 3 | 27.3 | 1 | 50.0 |
| | 패턴4 | 1 | 8.3 | 4 | 36.4 | 0 | 0 |
| | 패턴5 | 0 | 0 | 2 | 18.2 | 0 | 0 |
| | 패턴1+3 | 2 | 16.7 | 0 | 0 | 0 | 0 |
| | 합계 | 12 | 100 | 11 | 100 | 2 | 100 |

지자와의 확인과 재조정 과정을 통해 최종 억양패턴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자의 1차 분류에서 5개 억양 패턴의 경우는 애매한 억양 곡선을 보이고 있어서 박사학위와 조정을 하였고 특히, 억양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기준으로 억양 패턴을 재검토하고 논의한 후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IV. 결과 및 논의

1.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위치에 따른 억양패턴

모국어에 따라 위치별로 사용되는 억양패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금 더 세분화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국어에 따른 담화표지어 *well*의 위치별 억양패턴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6>과 같다.

위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담화표지어 *well*이 문장의 처음 위치에서 발화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 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3이 33.3%, 패턴5는 22.2%, 패턴1과 패턴2는 16.7%, 패턴4와 패턴 1+3은 각각 5.6%로 사용되었다. 만다린 화자는 패턴4는 29.2%, 패턴1+3은 20.8%, 패턴3은 16.7%, 패턴1과 패턴5는 12.5%, 패턴2는 8.3%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어 화자는 패턴1이 50%, 패턴4가 37.5%, 패턴5가 12.5%

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용하는 패턴의 종류에 있어서 광둥어 화자와 만다린 화자의 경우 총 7개의 기준 패턴 중 6개의 패턴을 사용하였으나,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3개의 패턴 사용만 관찰되었다. *well*이 문장의 처음 위치에서 나타날 때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로부터 공통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패턴은 5+3혼합 패턴이며, 한국어 화자의 경우 패턴2, 패턴3, 패턴1+3도 출현하지 않았다.

*well*이 문장의 중간 위치에서 발화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1이 41.7%, 패턴2는 25%, 패턴1+3은 16.7%, 패턴3과 패턴4는 각각 8.3%로 사용되었다. 만다린 화자는 패턴4가 36.4%로 가장 높게 사용되었고, 패턴3이 27.3%, 패턴1과 패턴5가 각각 18.2%로 사용되었다. 한국어 화자는 패턴2와 3을 각각 50%씩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ll*이 문장의 중간 위치에서 나타날 때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패턴은 5+3혼합 패턴이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 패턴1, 패턴4, 패턴5, 패턴1+3도 출현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하는 패턴 종류의 개수에 있어서 광둥어 화자 경우 원어인 담화표지어 연구에서 나타난 총 7개의 기준 패턴 중 5개의 억양패턴을 사용하였고,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4개의 패턴을 사용하였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2개의 억양패턴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담화표지어 *you know*의 위치별 억양패턴 분포를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내용

은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you know*를 문장의 처음 위치에서 발화할 때 관찰된 고빈도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1, 패턴2, 패턴4를 각각 33.3%로 고르게 사용하였으며, 패턴5+3도 1% 관찰되었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1과 패턴4를 각각 26.3%, 패턴3을 21.1%, 패턴2를 15.8%, 패턴5와 패턴1+3을 5.3%로 사용하였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2, 패턴3, 패턴4를 각각 33.3%로 사용하였다. *you know*가 문장의 처음 위치에서 나타날 때 기준 패턴 7개 중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1회도 발견되지 않았던 패턴은 없었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 패턴1, 패턴4, 패턴1+3이 출현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하는 패턴 종류의 개수에 있어서 광둥어 화자 경우 원어인 담화표지어 연구에서 나타난 총 7개의 기준 패턴 중 4개의 억양패턴을 사용하였고,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6개의 패턴을 사용하였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3개의 억양패턴을 주로 사용하였다.

*you know*를 문장의 중간 위치에서 발화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3이 44.4%, 패턴1이 22.2%, 패턴2, 패턴5, 패턴1+3은 각각 11.1%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1을 34.8%, 패턴5는 21.7%, 패턴4는 17.4%, 패턴3은 13%, 패턴2는 8.7%, 패턴5+3은 4.3%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4를 37.5%, 패턴3, 패턴1+3은 각각 25%, 패턴1은 12.5%로 사용하는 것이 나타났다. *you know*가 문장의 중간 위치에서 나타날 때 기준 패턴 7개 중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1회도 발견되지 않았던 패턴은 없었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 패턴2, 패턴4, 패턴5+3이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하는 패턴 종류의 개수에 있어서 광둥어 화자 경우 총 7개의 기준 패턴 중 5개의 억양패턴을 사용하였고, 만다린 화자의 경우도 6개의 패턴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3개의 억양패턴 사용이 관찰되었다.

*you know*를 문장의 끝 위치에서 발화할 때 관찰된

<표 7> 모국어에 따른 담화표지어 *you know* 위치별 억양패턴 분포

| 변수 | 광둥어 화자 | | 만다린 화자 | | 한국어 화자 | | |
|-----------------------------|--------|---|--------|----|--------|---|------|
| | N | % | N | % | N | % | |
| 처음 | 패턴1 | 1 | 33.3 | 5 | 26.3 | 0 | 0 |
| | 패턴2 | 1 | 33.3 | 3 | 15.8 | 1 | 33.3 |
| | 패턴4 | 0 | 0 | 4 | 21.1 | 1 | 33.3 |
| | 패턴5 | 1 | 33.3 | 5 | 26.3 | 0 | 0 |
| | 패턴1+3 | 0 | 0 | 1 | 5.3 | 1 | 33.3 |
| | 패턴5+3 | 0 | 0 | 1 | 5.3 | 0 | 0 |
| | 합계 | 3 | 100 | 19 | 100 | 3 | 100 |
| <i>you know</i> 위치 중간 | 패턴1 | 2 | 22.2 | 8 | 34.8 | 1 | 12.5 |
| | 패턴2 | 1 | 11.1 | 2 | 8.7 | 0 | 0 |
| | 패턴3 | 0 | 0 | 3 | 13.0 | 2 | 25.0 |
| | 패턴4 | 4 | 44.4 | 4 | 17.4 | 0 | 0 |
| | 패턴5 | 1 | 11.1 | 5 | 21.7 | 3 | 37.5 |
| | 패턴1+3 | 1 | 11.1 | 0 | 0 | 2 | 25.0 |
| | 패턴5+3 | 0 | 0 | 1 | 4.3 | 0 | 0 |
| | 합계 | 9 | 100 | 23 | 100 | 8 | 100 |
| 끝 | 패턴1 | 1 | 50.0 | 0 | 0 | 0 | 0 |
| | 패턴2 | 0 | 0 | 1 | 50.0 | 0 | 0 |
| | 패턴3 | 1 | 50.0 | 0 | 0 | 1 | 33.3 |
| | 패턴4 | 0 | 0 | 0 | 0 | 2 | 66.7 |
| | 패턴5 | 0 | 0 | 1 | 50.0 | 0 | 0 |
| | 합계 | 2 | 100 | 2 | 100 | 3 | 100 |

고빈도의 억양패턴은 다음과 같다.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1과 패턴3을 각각 50% 사용하였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2와 패턴5를 각각 50%, 그리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4를 66.7%, 패턴3을 33.3%로 사용하였다.

*you know*가 문장의 끝 위치에서 나타날 때 기준 패턴 7개 중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1회도 발견되지 않았던 패턴은 패턴 1+3, 패턴5+3과 같은 혼합패턴이었으며, 한국어 화자의 경우 패턴1, 패턴2, 패턴5도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또한, 사용하는 패턴 종류의 개수에 있어서 광둥어 화자 경우 총 7개의 기준 패턴 중 2개의 억양패턴을 사용하였고,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2개의 패턴을 사용하였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개의 억양패턴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담화표지어 *I mean*의 위치별 억양패턴 분포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아래의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I mean*을 문장의 처음 위치에서 발화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패턴은 다음과 같다.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5를 37.5%, 패턴 4와 패턴1+3은 25%, 패턴1은 12.5%로 사용하였다. 만

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5를 28.6%, 패턴1, 패턴2는 각각 19%, 패턴4는 14.3%, 패턴3과 패턴1+3은 9.5%로 사용하였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4와 패턴5를 30%, 패턴1, 패턴2, 패턴3, 패턴1+3을 각각 10%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I mean*이 문장의 처음 위치에서 나타날 때 기준 패턴 7개 중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1회도 발견되지 않았던 패턴은 패턴 5+3이었으며, 광둥어 화자가 가장 적은 패턴 사용을 보였다. 사용하는 패턴 종류의 개수에 있어서 광둥어 화자 경우 총 7개의 기준 패턴 중 4개의 억양패턴을 사용하였고,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6개의 패턴을 사용하였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도 6개의 억양패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mean*을 문장의 중간 위치에서 발화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패턴은 다음과 같다.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2와 패턴3을 각각 25%, 패턴1, 패턴1+3은 16.7%, 패턴4, 패턴5는 8.3%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5를 41.2%, 패턴2는 26.5%, 패턴3은 14.7%, 패턴1은 8.8%, 패턴4는 5.9%, 패턴1+3은 2.9%로 사용하였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3을 60%,

<표 8> 모국어에 따른 담화표지어 *I mean* 위치별 억양패턴 분포

| 변수 | 광둥어 화자 | | 만다린 화자 | | 한국어 화자 | | |
|---------------------------|--------|----|--------|----|--------|----|------|
| | N | % | N | % | N | % | |
| 처음 | 패턴1 | 1 | 12.5 | 4 | 19.0 | 1 | 10.0 |
| | 패턴2 | 0 | 0.0 | 4 | 19.0 | 1 | 10.0 |
| | 패턴3 | 0 | 0.0 | 2 | 9.5 | 1 | 10.0 |
| | 패턴4 | 2 | 25.0 | 3 | 14.3 | 3 | 30.0 |
| | 패턴5 | 3 | 37.5 | 6 | 28.6 | 3 | 30.0 |
| | 패턴1+3 | 2 | 25.0 | 2 | 9.5 | 1 | 10.0 |
| | 합계 | 8 | 100 | 21 | 100 | 10 | 100 |
| <i>I mean</i> 위치 중간 | 패턴1 | 2 | 16.7 | 3 | 8.8 | 0 | 0.0 |
| | 패턴2 | 3 | 25.0 | 9 | 26.5 | 1 | 20.0 |
| | 패턴3 | 3 | 25.0 | 5 | 14.7 | 3 | 60.0 |
| | 패턴4 | 1 | 8.3 | 2 | 5.9 | 0 | 0.0 |
| | 패턴5 | 1 | 8.3 | 14 | 41.2 | 1 | 20.0 |
| | 패턴1+3 | 2 | 16.7 | 1 | 2.9 | 0 | 0.0 |
| | 합계 | 12 | 100 | 34 | 100 | 5 | 100 |
| 끝 | 패턴2 | - | - | 1 | 20.0 | - | - |
| | 패턴3 | - | - | 1 | 20.0 | - | - |
| | 패턴4 | - | - | 2 | 40.0 | - | - |
| | 패턴5 | - | - | 1 | 20.0 | - | - |
| | 합계 | - | - | 5 | 100 | - | - |

패턴2와 5는 각각 20%로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하는 패턴 종류의 개수에 있어서 광둥어 화자 경우 총 7개의 기준 패턴 중 6개의 억양패턴을 사용하였고, 만다린 화자의 경우도 6개의 억양패턴이 관찰되었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3개의 억양패턴이 관찰되었다.

*I mean*이 문장의 중간 위치에서 나타날 때 기준 패턴 7개 중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1회도 발견되지 않았던 패턴은 패턴 5+3이었으며, 한국어 화자는 패턴1, 패턴4, 패턴1+3도 관찰되지 않았다.

*I mean*을 문장의 끝에서 발화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광둥어 화자와 한국어 화자에서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고, 만다린 화자에서만 총 4개의 패턴이 관찰되었다. 발화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패턴으로는 패턴 4가 40%로 나타났고 패턴2, 패턴3, 패턴5가 각각 20%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위치에 따른 억양패턴 분포 분석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은 패턴5+3이 아시아권 화자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시아권 화자가 영어 원어민에 비해 위치별로 한정된 억양패턴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권 화자 중에서도 한국어 화자 화자는 억양패턴의 사용이 더욱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다린 화자, 광둥어 화자는 문장의 처음, 중간,

끝에서 평균 약 5개의 억양패턴이 관찰된 반면, 한국어 화자는 평균 약 3개의 억양패턴만 관찰되었다. 아시아권 화자가 고빈도로 사용한 억양패턴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아래의 <표 9>와 같이 아시아권 화자가 선호하는 패턴은 패턴1+3, 패턴5+3과 같은 한 가지 이상의 패턴들이 혼합된 형태가 아니며, 오히려 단순패턴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위에서 또 한가지 독특하게 관찰되는 것은 한국어 화자 화자가 평판억양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어 화자 화자는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에 비해 담화표지어의 다양한 위치에서 고빈도의 평판억양 사용이 나타난다. 한국어 화자는 평판 억양을 *well*의 처음, *you know*의 중간, 끝 위치에서도 고빈도로 사용하는 것이 나타난다. 반면, 만다린 화자는 문장의 어떠한 위치에서도 평판억양을 고빈도로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고 광둥어 화자 화자 경우는 *you know* 중간에서만 고빈도로 사용한 것이 1회 관찰되었다. 한국어 화자의 평판억양이 고빈도로 사용된 원인은 피치 조절이 익숙하지 않은 모국어의 영향으로 보인다. 즉, 비성조 언어를 모국어로 둔 한국어 화자와 달리, 성조언어가 모국어인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는 피치를 조절하여 단어의 의미를 바꾸는 등 피치가 억양패턴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서 유창한 영어화자는 억양조절을 의사소통의 또

<표 9> 담화표지어 위치별 고빈도 억양패턴 현황

| 담화표지어 | 분류 | 광둥어 화자 | 만다린 화자 | 한국어 화자 |
|-----------------|----|--|------------------------------------|--|
| <i>well</i> | 처음 | 패턴2 상승 억양 | 패턴4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 | 패턴1 하강 억양 |
| | 중간 | 패턴1 하강 억양 | 패턴4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 | 패턴2, 패턴3 상승 억양, 평판 억양 |
| <i>you know</i> | 처음 | 패턴1, 패턴2, 패턴5 하강 억양, 상승 억양, 상승에 이은 하강 억양 | 패턴1, 패턴4 하강 억양,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 | 패턴2, 패턴3, 패턴5 상승 억양, 평판 억양, 상승에 이은 하강 억양 |
| | 중간 | 패턴3 평판 억양 | 패턴4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 | 패턴1 하강 억양 |
| | 끝 | 패턴1 하강 억양 | 패턴4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 | 패턴2, 패턴3 상승 억양, 평판 억양 |
| <i>I mean</i> | 처음 | 패턴5 상승에 이은 하강 억양 | 패턴5 상승에 이은 하강 억양 | 패턴4, 패턴5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 상승에 이은 하강 억양 |
| | 중간 | 패턴2 상승 억양 | 패턴4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 | 패턴2, 패턴4 상승 억양,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 |
| | 끝 | | 패턴4 하강에 이은 상승 억양 | |

다른 전략으로 사용한다(Wennerstrom, 1994). 레벨이 높은 단계에 있는 화자는 억양 조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어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Wennerstrom, 1994). 따라서 한국어 화자의 경우 피치의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억양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치 조절 실패로 나오게 되는 평판억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

2.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기능에 따른 억양패턴

발화 시 모국어에 따라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기능 중 고빈도로 나타난 기능에서 사용되는 억양패턴을 분석하였다. 먼저 담화표지어 *well*의 사용에서 나타난 고빈도 기능은 도입, 말 채움, 체면완화였고, 담화표지어 *you know*에서 나타난 고빈도 기

능은 공유지식, 표현수정, 말채움 이었으며, 담화표지어 *I mean*에서 나타난 고빈도 기능은 표현수정, 부연설명, 도입으로 조사되었다. 담화표지어 *well*의 고빈도 기능에서 나타난 모국어별 억양패턴은 아래의 <표 10>과 같다.

아래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담화표지어 *well*을 도입 기능으로 사용하여 발화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2가 57.1%, 패턴3은 28.6%, 패턴4는 14.3%에 해당하였다. 총 3개의 억양패턴이 관찰되었고 상승억양 패턴인 패턴2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4가 37.5%, 패턴1은 18.8%, 패턴3, 패턴5, 패턴1+3은 12.5%로 사용되었다. 총 6개의 억양패턴이 나타났으며 하강에 이은 상승억양인 패턴4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1을 100% 비율로 사용하였다.

<표 10> 모국어에 따른 담화표지어 *well* 기능별 억양패턴 빈도

| 변수 | 광둥어 화자 | | 만다린 화자 | | 한국어 화자 | | | |
|----------------|--------|-------|--------|------|--------|------|-----|------|
| | N | % | N | % | N | % | | |
| 도입 | 패턴1 | 0 | 0 | 3 | 18.8 | 3 | 100 | |
| | 패턴2 | 4 | 57.1 | 1 | 6.3 | 0 | 0 | |
| | 패턴3 | 2 | 28.6 | 2 | 12.5 | 0 | 0 | |
| | 패턴4 | 1 | 14.3 | 6 | 37.5 | 0 | 0 | |
| | 패턴5 | 0 | 0 | 2 | 12.5 | 0 | 0 | |
| | 패턴1+3 | 0 | 0 | 2 | 12.5 | 0 | 0 | |
| | 패턴5+3 | 0 | 0 | 0 | 0 | 0 | 0 | |
| 합계 | 7 | 100 | 16 | 100 | 3 | 100 | | |
| <i>well</i> 기능 | 말 채움 | 패턴1 | 8 | 50.0 | 2 | 18.2 | 1 | 50.0 |
| | | 패턴2 | 2 | 12.5 | 1 | 9.1 | 0 | 0 |
| | | 패턴3 | 0 | 0 | 3 | 27.3 | 1 | 50.0 |
| | | 패턴4 | 1 | 6.3 | 2 | 18.2 | 0 | 0 |
| | | 패턴5 | 2 | 12.5 | 1 | 9.1 | 0 | 0 |
| | | 패턴1+3 | 3 | 18.8 | 2 | 18.2 | 0 | 0 |
| | | 패턴5+3 | 0 | 0 | 0 | 0 | 0 | 0 |
| 합계 | 16 | 100 | 11 | 100 | 2 | 100 | | |
| 체면완화 | 패턴1 | 0 | 0 | 0 | 0 | 0 | 0 | |
| | 패턴2 | 0 | 0 | 0 | 0 | 0 | 0 | |
| | 패턴3 | 2 | 66.7 | 2 | 40.0 | 0 | 0 | |
| | 패턴4 | 0 | 0 | 1 | 20.0 | 2 | 100 | |
| | 패턴5 | 1 | 33.3 | 1 | 20.0 | 0 | 0 | |
| | 패턴1+3 | 0 | 0 | 1 | 20.0 | 0 | 0 | |
| | 패턴5+3 | 0 | 0 | 0 | 0 | 0 | 0 | |
| 합계 | 3 | 100 | 5 | 100 | 2 | 100 | | |

담화표지어 *well*을 말채움 또는 차례유지 기능으로 사용하여 발화할 때 관찰된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1이 50%, 패턴1+3은 18.8%, 패턴2와 패턴5는 각각 12.5%, 그리고 패턴4는 6.3%로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총 5개의 패턴이 나타났고, 하강억양인 패턴1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3이 27.3%, 패턴1, 패턴4, 패턴1+3이 각각 18.2%, 그리고 패턴2와 패턴5는 각각 9.1%로 사용되었다. 총 6개의 억양패턴이 관찰되었고, 평판억양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1과 패턴3을 각각 50%로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총 2개의 억양패턴이 관찰되었고 하강억양인 패턴1과 평판억양인 패턴3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여준다.

담화표지어 *well*을 체면완화 기능으로서 사용하여 발화할 때 관찰된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3이 66.7%, 패턴5는 33.3%로 사용하였다. 만다린 화자

의 경우는 패턴3이 40%, 패턴4, 패턴5, 패턴6은 각각 20%로 사용하였고,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4를 100% 비율로 사용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어민의 연구 (Romero-Trillo, 2015)와 다른 점이 나타난다. 원어민에게서 나타나는 *well*의 기능별 억양패턴 결과에서는 특정 기능의 발화 시 선호하는 확실한 억양패턴이 나타나는 반면, 본 연구의 아시아권 화자들에게서는 다양한 억양패턴이 나타났고, 확실히 선호하는 억양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담화표지어 *you know*의 사용에서 나타난 고빈도 기능은 공유지식, 표현수정, 말채움이며, 각각의 고빈도 기능에서 나타난 모국어별 억양패턴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아래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담화표지어 *you know*를 공유지식 기능으로 사용하여 발화할 때 관

<표 11> 모국어에 따른 담화표지어 *you know* 기능별 억양패턴 빈도

| 변수 | 광둥어 화자 | | 만다린 화자 | | 한국어 화자 | | |
|-------------------------------|--------|-----|--------|-----|--------|-----|------|
| | N | % | N | % | N | % | |
| 공유 지식 | 패턴1 | 2 | 50.0 | 0 | 0 | 0 | |
| | 패턴2 | 0 | 0 | 2 | 33.3 | 1 | 25.0 |
| | 패턴3 | 1 | 25.0 | 1 | 16.7 | 1 | 25.0 |
| | 패턴4 | 1 | 25.0 | 0 | 0 | 2 | 50.0 |
| | 패턴5 | 0 | 0 | 2 | 33.3 | 0 | 0 |
| | 패턴1+3 | 0 | 0 | 1 | 16.7 | 0 | 0 |
| | 패턴5+3 | 0 | 0 | 0 | 0 | 0 | 0 |
| 합계 | 4 | 100 | 6 | 100 | 4 | 100 | |
| <i>you know</i> 기능 표현수정 | 패턴1 | 1 | 25.0 | 2 | 25.0 | 0 | 0 |
| | 패턴2 | 0 | 0 | 0 | 0 | 0 | 0 |
| | 패턴3 | 0 | 0 | 1 | 12.5 | 1 | 33.3 |
| | 패턴4 | 2 | 50.0 | 2 | 25.0 | 1 | 33.3 |
| | 패턴5 | 1 | 25.0 | 3 | 37.5 | 1 | 33.3 |
| | 패턴1+3 | 0 | 0 | 0 | 0 | 0 | 0 |
| | 패턴5+3 | 0 | 0 | 0 | 0 | 0 | 0 |
| 합계 | 4 | 100 | 8 | 100 | 3 | 100 | |
| 말 채움 | 패턴1 | 0 | 0 | 7 | 43.8 | 1 | 14.3 |
| | 패턴2 | 0 | 0 | 1 | 6.3 | 0 | 0 |
| | 패턴3 | 0 | 0 | 1 | 6.3 | 1 | 14.3 |
| | 패턴4 | 1 | 50.0 | 3 | 18.8 | 0 | 0 |
| | 패턴5 | 0 | 0 | 3 | 18.8 | 2 | 28.6 |
| | 패턴1+3 | 1 | 50.0 | 0 | 0 | 3 | 42.9 |
| | 패턴5+3 | 0 | 0 | 1 | 6.3 | 0 | 0 |
| 합계 | 2 | 100 | 16 | 100 | 7 | 100 | |

찰되는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1이 50%, 패턴3과 패턴4는 각각 25%로 사용하였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2와 패턴5를 각각 33.3%, 패턴3과 패턴1+3은 16.7%로 사용하였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4를 50%, 패턴2와 패턴3을 각각 25%로 사용하였다. *you know*를 표현수정 기능으로 사용하여 발화할 때 관찰된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4가 50%, 패턴1과 패턴5가 각각 25%로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5가 37.5%, 패턴1과 패턴4는 25%, 패턴3은 12.5%로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3, 패턴4, 패턴5를 각각 33.3%로 사용하였다. *you know*를 말채움 기능으로 사용하여 발화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4와 패턴1+3이 각각 50%에 해당하였고,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1이 43.8%, 패턴4와 패턴5가 각각 18.8%, 그리고 패턴2, 패턴3, 패턴5+3이

6.3%에 해당하였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1+3을 42.9%, 패턴5는 28.6%, 패턴1과 패턴3은 14.3%로 사용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어민의 연구 (Romero-Trillo, 2015)와 다른 점이 나타난다. 원어민에게서 나타나는 *you know*의 기능별 억양패턴 결과에서는 특정 기능의 발화 시 선호하는 확실한 억양패턴이 나타나는 반면, 본 연구의 아시아권 화자들에게서는 다양한 억양패턴이 나타났고, 확실히 선호하는 억양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담화표지어 *I mean*에서 나타난 고빈도 기능 표현수정, 부연설명, 도입기능에서 모국어에 따라 사용된 억양패턴 분포를 분석하였다. 담화표지어 *I mean*의 고빈도 기능을 발화에서 사용할 때 관찰되는 모국어별 억양패턴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아래의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담화표지어 *I*

<표 12> 모국어에 따른 담화표지어 *I mean* 기능별 억양패턴 빈도

| 변수 | 광둥어 화자 | | 만다린 화자 | | 한국어 화자 | | | |
|---------------------|----------|-------|--------|------|--------|------|------|------|
| | N | % | N | % | N | % | | |
| 표현 수정 | 패턴1 | 3 | 37.5 | 3 | 9.1 | 0 | 0 | |
| | 패턴2 | 1 | 12.5 | 12 | 36.4 | 2 | 25.0 | |
| | 패턴3 | 1 | 12.5 | 4 | 12.1 | 3 | 37.5 | |
| | 패턴4 | 1 | 12.5 | 3 | 9.1 | 2 | 25.0 | |
| | 패턴5 | 1 | 12.5 | 9 | 27.3 | 1 | 12.5 | |
| | 패턴1+3 | 1 | 12.5 | 2 | 6.1 | 0 | 0 | |
| | 패턴5+3 | 0 | 0 | 0 | 0 | 0 | 0 | |
| | 합계 | 8 | 100 | 33 | 100 | 8 | 100 | |
| <i>I mean</i> 기능 | 부연 설명 | 패턴1 | 0 | 0 | 2 | 10.0 | 1 | 20.0 |
| | | 패턴2 | 2 | 18.2 | 2 | 10.0 | 0 | 0 |
| | | 패턴3 | 2 | 18.2 | 4 | 20.0 | 1 | 20.0 |
| | | 패턴4 | 2 | 18.2 | 4 | 20.0 | 0 | 0 |
| | | 패턴5 | 2 | 18.2 | 7 | 35.0 | 3 | 60.0 |
| | | 패턴1+3 | 3 | 27.3 | 1 | 5.0 | 0 | 0 |
| | | 패턴5+3 | 0 | 0 | 0 | 0 | 0 | 0 |
| | | 합계 | 11 | 100 | 20 | 100 | 5 | 100 |
| 도입 | 패턴1 | 0 | 0 | 2 | 28.6 | 0 | 0 | |
| | 패턴2 | 0 | 0 | 0 | 0 | 0 | 0 | |
| | 패턴3 | 0 | 0 | 0 | 0 | 0 | 0 | |
| | 패턴4 | 0 | 0 | 0 | 0 | 0 | 0 | |
| | 패턴5 | 1 | 100 | 5 | 71.4 | 0 | 0 | |
| | 패턴1+3 | 0 | 0 | 0 | 0 | 2 | 100 | |
| | 패턴5+3 | 0 | 0 | 0 | 0 | 0 | 0 | |
| | 합계 | 1 | 100 | 7 | 100 | 2 | 100 | |

mean을 표현수정 기능으로 사용하여 발화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1을 37.5%, 그리고 패턴2, 패턴3, 패턴4, 패턴5, 패턴1+3을 각각 12.5%로 사용하였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2가 36.4%, 패턴5는 27.3%, 패턴3은 12.1%, 패턴1과 패턴4는 9.1%, 패턴1+3은 6.1%로 사용하였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3이 37.5%, 패턴2와 패턴4는 25%, 패턴5는 12.5%로 사용하였다.

담화표지어 I mean을 부연설명 기능으로 사용하여 발화할 때 관찰된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1+3이 27.3%, 패턴2, 패턴3, 패턴4, 패턴5는 각각 18.2%로 사용하였다.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5가 35%, 패턴3과 패턴4는 20%, 패턴1과 패턴2는 10%, 패턴1+3은 5%로 사용하였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5를 60%, 패턴1과 패턴3을 각각 20%로 사용하였고, 혼합 패턴1+3도 5%나 관찰되었다.

담화표지어 I mean을 도입 기능으로 사용하여 발화할 때 관찰된 고빈도의 억양패턴은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5를 100%로 사용하였고, 만다린 화자의 경우는 패턴5가 71.4%, 패턴1을 28.6%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패턴4, 패턴1+3을 각각 50%로 사용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어민의 연구 (Romero-Trillo, 2015)와 다른 점이 나타난다. 원어민에게서 나타나는 I mean의 기능별 억양패턴의 결과에서

는 특정 기능의 발화 시 선호하는 확실한 억양패턴이 나타나는 반면, 본 연구의 아시아권 화자들에게서는 다양한 억양패턴이 나타났고, 확실히 선호하는 억양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담화표지어의 기능별 고빈도 억양패턴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

아래의 <표 13>에서 독특하게 관찰되는 사실은,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데 세 모국어 집단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과 모국어 내에서도 같은 기능 사용을 할 때 다른 억양패턴이 고빈도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well의 말채움 기능에서 한국어 화자는 하강억양(50%), 평판억양(50%)을 사용하였고, you know의 공유지식 기능에서 만다린 화자는 상승억양(33.3%), 하강억양(33.3%)이 고빈도로 동시에 나타났다. you know의 표현수정 기능에서 한국어 화자는 평판억양(33.3%), 하강에 이은 상승억양(33.3%), 그리고 상승에 이은 하강억양(33.3%)까지 동시에 나타나, 한 가지 기능에 3가지의 억양패턴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you know의 말채움 기능에서 광둥어 화자는 하강에 이은 상승억양(50%), 하강과 평판 억양의 혼합 패턴(50%)이 고빈도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I mean의 도입기능에서 한국어 화자가 하강에 이은 상승억양(50%), 하강과 평판 억양 혼합패턴(50%)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원어민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기능에 따라 선호하는 특정 억양

<표 13> 모국어별 고빈도로 나타난 억양패턴 현황

| 담화표지어 | 기능 | 광둥어 화자 | 만다린 화자 | 한국어 화자 |
|----------------|------|--|--|--|
| well 기능 | 도입 | 패턴2(상승억양, 57%) | 패턴4(하강에 이은 상승, 37.5%) | 패턴1(하강억양, 100%) |
| | 말 채움 | 패턴1(하강억양, 50%) | 패턴3(평판억양, 27.3%) | 패턴1(하강억양, 50%) 패턴3(평판억양, 50%) |
| | 체면완화 | 패턴3(평판억양, 66.7%) | 패턴3(평판억양, 40%) | 패턴4(하강에 이은 상승억양, 100%) |
| you know 기능 | 공유지식 | 패턴1(하강억양, 50%) | 패턴2(상승 억양, 33.3%) 패턴5(상승에 이은 하강억양, 33.3%) | 패턴4(하강에 이은 상승억양, 50%) 패턴3(평판억양, 33.3%), 패턴4(하강에 이은 상승억양, 33.3%) 패턴5(상승에 이은 하강억양, 33.3%) |
| | 표현수정 | 패턴4(하강에 이은 상승억양, 50%) | 패턴5(상승에 이은 하강억양, 37.5%) | 패턴4(하강에 이은 상승억양, 33.3%) 패턴5(상승에 이은 하강억양, 33.3%) |
| | 말 채움 | 패턴4(하강에 이은 상승억양, 50%) 패턴 +3(하강+평판억양, 50%) | 패턴1(하강억양, 43.8%) | 패턴 1+3(하강+평판억양, 42.9%) |
| I mean 기능 | 표현수정 | 패턴1(하강억양, 37.5%) | 패턴5(상승에 이은 하강억양, 35%) | 패턴3(평판억양, 37.5%) |
| | 부연설명 | 패턴 1+3(하강+평판억양, 27.3%) | 패턴5(상승에 이은 하강억양, 35%) | 패턴5(상승에 이은 하강억양, 60%) |
| | 도입 | 패턴5(상승에 이은 하강억양, 35%) | 패턴5(상승에 이은 하강억양, 71.4%) | 패턴4(하강에 이은 상승억양, 50%) 패턴 1+3 (하강+평판억양, 50%) |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Romero-Trillo, 2015).

위와 같은 아시아권 영어 화자의 독특한 억양패턴 사용 양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 세 모국어 화자는 담화표지어를 사용할 때 기능에 따라 뚜렷하게 선호하는 억양패턴이 정착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억양이 가장 어려운 발음 요소(Dalton & Seidlhofer, 1994; Jenkins, 2000; Kennedy & Tromfimovich, 2010; 정현성, 2012)라는 선행 연구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습득은 어려우나 의사소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에 습득할 수 있게 노출과 지도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참가자는 대학교 수업을 영어로 수강할 수 있는 정도의 유창한 화자(정현성, 이상기, 김윤규, 2016)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양 측면에서는 아직 가장 높은 단계로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고빈도의 다른 억양패턴이 가장 많았던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기능에 따른 뚜렷한 억양 조절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화석화된 억양은 금방 개선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반복적인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논의

본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고자 하는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아시아권 화자들의 억양패턴 사용에 있어서 위치별, 기능별로 사용이 선호되는 뚜렷한 억양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영어 모국어 화자와의 가장 큰 차이이다. 영어 화자들은 담화표지어 사용에 있어서 담화표지어의 출현 위치에 따라 억양패턴을 달리하며 담화표지어의 기능에 변화를 주는 반면, 아시아권 화자들에게서는 그러한 기능의 사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영어 화자들은 억양패턴을 달리하여 담화표지어의 다양한 기능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시아권 화자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비영어권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담화표지어의 위치와 기능에 따른 억양패턴이 원어민이 사용하는 담화표지어와 달리 일정한 패턴과 체계를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억양 구사에 있어서 중간언어의 특징이 관찰되

었다. 제2언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에 있는 음성적, 음운적 자질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중간언어의 특징이다. 위치에 따른 억양패턴의 분석에서 한국어 화자는 평판 억양을 고빈도로 사용하는 것이 *well*의 중간, *you know*의 처음, *you know*의 끝 위치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만다린 화자, 광둥어 화자 화자가 상대적으로 평판 억양을 매우 적게 사용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화자들의 모국어가 피치를 기반으로 하는 성조언어(*tone language*)인가 비성조 언어(*non-tone language*)인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만다린 화자와 광둥어 화자는 피치를 조절하여 단어의 의미를 바꾸는 모국어로 인해 담화표지어의 억양 조절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한국어 화자는 음절-박자 언어(*syllable timed language*)로서 피치를 조절한다고 해도 단어의 의미가 바뀌지 않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성조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에게서는 패턴이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고 비성조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에게서는 다른 언어권 화자들과의 억양 사용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므로 모국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학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비성조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화자들에게 피치에 대한 민감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유창한 화자는 억양의 3요소인 피치, 길이, 강세 중에서 피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억양으로 의미를 전달한다(Wennerstrom, 1994). 따라서 성조 언어가 아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을 대상으로 피치의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권 화자인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위치와 기능에서 사용되는 억양의 사용양상과 패턴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나온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위치에 따른 억양패턴의 사용에 있어서 한국어 화자의 제한적인 사용이 관찰되었다. 담화표지어 위치별 분석에서 *you know* 끝과 *I mean* 처음을 제외한 *well* 처음, *well* 중간, *you know* 처음, *you know* 중간 위치 모두에서

한국어화자가 가장 적은 억양패턴 개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에 비해 억양패턴의 사용이 풍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위치분석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한국어 화자의 고빈도 평판억양 사용도 한국어화자의 제한된 억양 사용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평판 억양은 피치의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억양이기 때문에 한국어 화자가 피치 조절을 통해 억양을 자유자재로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평판억양은 만다린 화자 집단에서는 고빈도 패턴으로 발견되지 않았으며 광둥어 화자 집단에서는 1회 고빈도 패턴으로 출현한 억양으로 총 3회에 걸쳐 나타난 한국어 화자 집단과는 차이를 보인다. 영어 원어민의 평판 억양 사용은 다른 억양에 비해 매우 적은 빈도로 나타난다. 영어는 억양 언어(intonational language)이며, 억양을 통해 언어의 의미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Wennerstrom, 1994)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어 화자가 원어민 화자에 가깝도록 다양한 억양패턴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인은 모국어인 한국어가 피치를 조절하여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바꾸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 영어 원어민과는 다른 사용 양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 현장에서 비성조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풍부한 억양패턴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을 늘리며, 의미와 기능에 맞게 피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억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기능에 따라 선호하는 억양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원어민의 경우 *well, you know, I mean*의 기능별로 선호하는 억양패턴이 보통 한 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의 경우 기능별로 2개 이상의 억양패턴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고, 이것은 원어민과 다른 사용 양상이다. 즉, *well*의 말체움 기능에서는 한국어 화자의 경우 패턴1과 패턴3을 많이 사용하고, *you know* 공유지식 기능에서는 만다린 화자의 경우 패턴2와 패턴5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현수정 기능에서는 한국어 화자의 경우 패턴3과 패턴4, 그리고 패턴5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말체움 기능에서는 광둥어 화자의 경우 패턴4, 혼합 패턴1+3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 mean* 도입 기능에서는 한국어 화자의 경우 패턴4, 혼합 패턴1+3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

원어민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아시아권 비원어민 화자인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 사용하는 억양이 원어민과 같은 확실한 수준으로 진입한 단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기능에 따라 모국어별로 뚜렷하게 선호되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영어로 대학 수강이 가능한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 학습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양 습득이 최고의 단계로 진입되지 않은 중간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발음 요소에 있어서 억양 습득이 가장 어려운 요소(Dalton & Seidlhofer 1994; Jenkins, 2000; 정현성, 2012)임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제2언어 발음 교육에서 억양은 고도의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음성 학습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현재 2015 영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상급 학습자의 발음 교육에서 담화표지어 억양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행 2015 개정영어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내용체계에 있는 내용 요소를 보면, 발음 교육이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억양과 같이 습득이 어렵고 고도의 인지 능력을 요구하며 많은 노출과 학습이 필요한 발음 요소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한시적으로 지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의 상급학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영어 교사는 영어교과에서 제공되는 음성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억양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억양 지도 방법으로는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 발화에서 흔들리는 음절 듣고 따라하기, 맥락이 주어진 대화에서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대화 주고 받기, 억양을 통해 감정 표현하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리듬과 억양도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맥락이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 영어 학습자들이 억양을 통해서 의미와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교수자는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상급 수준의 유창성을 길러 주기 위해서 상급학년까지 지도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살아 있는 대화가 풍부하게 녹음된 음성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맥락에서 매우 자주 출현하는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억양 패턴 분석, 억양의 특징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미 밝혀진 원어민 화자의 억양 사용

양상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기술하여 부족한 아시아권 ELF 억양 연구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 외의 담화표지어, 특히 억양을 통해 부정과 긍정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담화표지어 *yeah, ok* 등에 대한 연구, 원어민 화자를 직접 모집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 등도 부족한 억양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권 광둥어 화자, 한국어 화자, 한국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위치와 기능에 따른 억양패턴을 관찰하고 이것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위치에 따른 억양패턴에 있어서 한국어 화자의 제한적인 사용이 나타났다. 한국어 화자는 광둥어 화자와 만다린 화자에 비해서 위치별로 사용하는 억양패턴이 다양하지 않았다. 특히 평판 억양패턴이 다른 두 모국어 집단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나타났고 이것은 한국어 화자의 억양 조절이 다양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둘째, 담화표지어 *well, you know, I mean*의 기능별로 선호하는 억양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원어민의 경우 *well, you know, I mean*의 기능별로 선호하는 억양패턴이 보통 한 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광둥어 화자, 만다린 화자, 한국어 화자 모두 기능별로 2개 이상의 억양패턴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원어민이 특정 기능에 한 개의 억양패턴만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억양 습득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비성조 언어를 모국어로 둔 한국어 화자가 성조언어를 모국어로 둔 만다린 화자와 광둥어 화자에 비해 피치 조절이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저학년에서 상급학년에 이르기까지 억양교육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담화표지어, 억양패턴, 담화표지어 위치, 담화표지어 기능, 아시아권 화자, 억양교육, ELF

참고문헌

교육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남주연 (2015). **담화표지어 *you know*의 억양 패턴과 기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서혜지 (2017). **아시아 상황의 공통어 자질 연구: 어휘 문법 특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송경숙 (2011). 국제어 글로벌 언어로서의 영어: 언어태도 및 교육적 함축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53(1), 201-221.

신명희 (2006). 담화표지어 *You know*. **한국현대언어학회**, 22(2), 43-56.

윤성숙 (2018). **아시아권 영어 화자들이 발화한 담화표지어의 억양 연구: *well, you know, I mean*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윤성숙, 김정렬 (2018). 아시아권 화자의 대화맥락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34(3), 89-106.

이상기, 정현성, 김윤규 (2016). 아시아 상황의 영어 공통어 자질 연구: 어휘 문법 오류 수정 전략. **중등영어교육**, 9(2), 89-114.

이재근, 정은숙 (2015).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수시 개정 변화에 따른 초등 국정 및 검정 영어교과서 변천과 미래. **초등교과교육연구**, 21(3), 73-82.

정현성 (2012). 영어발음의 ELF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분석. **초등교과 교육연구**, 17(1), 123-138.

정현성, 김윤규, 이상기 (2016). 아시아 상황의 영어 공통어 자질 연구: 분절음 특성. **언어와 언어학**, 71, 237-266.

정현성, 이상기, 김윤규 (2016). 아시아 상황의 영어 공통어 자질 연구: 리듬 특성. **말소리와 음성과학**, 8(2), 1-9.

주미경 (1999). **영어 화용 표지의 위치와 기능**.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부산.

최성심 (2003). **음성분석을 통한 초등학생의 영어 억양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최재환 (2008).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담화표지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Briton, L. J.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 Germany: Mouton de Gruyter.

- Breiteneder, A. (2005). The naturalness of English as a European lingua franca: The case of the “third person -s.” *Vienna English Working Papers*, 14(2), 3-26.
- Dalton, C., & Seidlhofer, B. (1994).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use, J. (2009). Subjectivity in English as lingua franca discourse: *The case of you know*. *Intercultural Pragmatics*, 6(2), 171-193.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Jenkins, J. (2002). A sociolinguistically based, empirically researched pronunciation syllabus for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23(1), 83-103.
- Kennedy, S., & Trofimovich, P. (2010). Language awareness and second language pronunciation: a classroom study. *Language Awareness*, 19(3), 171-185.
- Neary-Sundquist, C. (2014). The Use of Pragmatic Markers across Proficiency Levels in Second Language Speech. *Studie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4), 637-663.
- Parrot, M. (2002). *Grammar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mero-Trillo, J. (2018). Prosodic modeling and position analysis of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conversation. *Corpus linguistics and linguistic theory*, 14(1), 169-195.
-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ker, R. (2010).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Wennerstrom, A. (1994). Intonational Meaning in English Discourse: A Study of Non-Native Speakers. *Applied Linguistics*, 15(3), 399-420.
- Xu, Y. (2013). ProsodyPro — A Tool for Large-scale Systematic Prosody Analysis. *In Proceedings of Tools and Resources for the Analysis of Speech Prosody (TRASP 2013)*, Aix-en-Provence, France, 7-10.